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새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07 용마의 밤

"다시 한 번 하나된 용마인"

- 1,100여명 모여 신명나는 잔치 마련

매년 12월 둘째 주 금요일에
펼쳐지는 '용마의 밤' 축제가 지
난 12월 7일 저녁, 부산 서면 롯
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국내
외 1,100여 명의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다.

장으로 흡뻑 젖어들었다.

조명이 소등된 가운데 대형 멀
티스크린에서 김종석 경남고 교
장(24회), 이종운 경남고 야구감
독(39회), 이동근 경남고 학생회
장(62회) 등의 축하 메시지가 학

육 본부 사무총장·19회)

내빈소개에서는 안강태 본부
회장을 비롯 권오현, 김근준(이
상 1회) 조대제(7회) 박동열(8회)
정행권(9회) 본부 고문과 김병기
이명(이상 11회) 본부 자문위원,



△2007 용마의 밤 축제에서 참가 동문들이
초청공연인 국악실내단의 연주를 관람하고
있다.

■축하메시지 상영

안강태 본부 동창회장(11회·
대선조선(주) 대표이사)의 주재
로 열린 이날 축제에서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못할 아름다
운 추억을 남기기 위해 참가자들
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
는 마음이 넘치는 단결과 화합의

교 전경 및 학생들의 생활모습
등과 함께 상영된 후 시작된 제1
부 공식행사는 개회선언(송규정
본부 부회장·16회), 내빈소개,
회장 개회사, 격려사(정행권 본
부 고문·9회), 본부 주관 각종
행사 시상식(바둑·골프·기별
야구·등산 대회), 모교 발전 기
금 전달식, 축하 케이크 커팅, 축
배(김근준 본부 고문·1회)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회: 하홍

김용호(14회) 송규정(16회) 남진
현(19회) 박홍조(22회) 박상호
(26회) 박명진(33회) 장인화(35
회) 정윤성(35회) 임태영(40회)
본부 부회장, 강수경(21회) 용마
바둑회장, 조홍기(22회) 경야회
장, 정명석(24회) 용마회장, 김경
진(27회) 경총회장 및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한 권철현(19회) 김
형오(20회) 김무성(24회) 서병수
(25회) 엄호성(28회) 유기준(32

회) 국회의원과 문정수(12회) 전
부산시장, 이종철(16회) 부산 남
구청장, 김종석(24회) 경남고 교
장 등이 인사, 박수를 받았다.

안강태 본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명문 경남중·고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이어가야 할 우리의 빛나는
전통이며 막대한 의무·임을 강조
하고, '행동으로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참여하자'고 말하였다.

이어진 본부 주관 각종 대회 시
상식에서는 △용마바둑대회 단
체전: A조 우승 - 30회, B조 우
승 - 16회, C조 우승 - 29회 △용
마골프대회: 우승 - 25회, 준우
승 - 19회, 3위 - 23회 △기별야구
대회: 우승 - 44회, 준우승 - 27회
△등산대회: 1위 - 23회, 2위 - 33
회, 3위 - 17회가 각각 우승기(배)
와 상패를 받았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1社1校
운동의 일환으로 경남고등학교
와 자매결연을 맺은 신태양건설
(대표이사 회장: 박상호 본부 부
회장·26회)에서 모교에 발전기
금으로 1차분 1,000만 원을 전달
하여 참가 동문들의 뜨거운 박수

를 받았다.

■교전경과 동창회 활동 모음 상영

■국악 실내단 '休' 초청공연

만찬 중에는 작년에 이어 2연
페를 한 청룡기 야구 결승전 경
기와 우승 장면을 동영상으로 상
영하여 다시 한 번 그 때의 감격
을 느끼게 하였으며 사진으로 모
교전경과 동창회 활동상도 아울
러 보여 주었다.

제2부는 전문 MC인 김경진
(44회) 등문이 올해에도 수고한
가운데 펼쳐져 먼저 국악 실내단
'休'의 초청공연이 있었으며 이
어 벌어진 동문 장기자랑은 그야
말로 흥겨움의 한바탕이었다.

개인 장기자랑 뿐만 아니라 23
회, 36회 등은 참석한 전동기생
이 한데 어울려 춤을 추고 노래
를 불러 무대의 안전성(?)에 우려
가 있을 정도였다.

올해의 행운상은 해외여행상
품권, 백화점상품권, 건강검진권
등이 준비되어 그 어느 해 보다
도 실리적이고 알찬 상품이었다
고 모두들 입을 모았다.

용마의 밤 협찬

올해도 변함없이 본부 고문을
위시하여 회장단에서 많은 협찬
을 해주셨고 각 기별로도 분담금
을 내주셔서 무난히 행사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
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권오현(1회) △우명수(5회)
△조대제(7회) △정행권(9회)
△김병기(11회) 이상 20만원
△안강태(11회) 200만원
△강수현(12회) △송규정(16회)
△김길제(18회) △남진현(19회)
△이용희(19회) △이재호(21회)

△박재상(22회) △최강호(28회)

△윤성덕(30회) △박명진(33회)

△김두섭(34회) 이상 50만원

△김형오(20회) △박철병(23회)

△김무성(24회) △김태우(27회)

이상 30만원

△용마회 10만원

△울산지역 동창회 20만원

△마창지역 동창회 20만원

▶축전 △권철현(19회) △정갑
윤(23회) △조경태(40회) 이상 국
회의원

▶축하 화환 △개성고 총동창회

△동래고 총동창회 △동아고 총
동창회 △부경고 총동창회 △부
산여고 총동창회 △배정고 총동
문회

(8면에 계속)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주식회사 부산스타자동차

과장 오용승 46회
전화 010 6500 6404

본부 제39회 기별대항 야구대회

- 우승 : 제44회 준우승 : 제27회



△제39회 기벌야구대회에서 우승을 한 제44회 선수들의 모습.

지난 11월 3일(토) 경남고 야구장에서 열린 제39회 동창회장기 기별대항 야구 대회(주최 본부·주관 경야회) 결승전에서 제44회가 제27회와 격돌을 벌인 끝에 21:15로 이겨 우승을 차지하였다.

대회 때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혀 온 제27회는 선발 황귀량의 호투와 찬스 때마다 터지는 적시타로 5회초 까지 15:11로 앞섰으나 5회말 44회의 공격에서 선두타자 최주섭의 안타를 시작으로 연속 8안타 등으로 대거 10점 을 내주어 역전을 당했으며 이후 44회 투수 석상봉의 안정된 투구에 타선이 꽁꽁 뮤여 마침내 우승의 자리를 내어 주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통한의 준 우승에 머물고 말았다.

최우수 선수상(MVP)은 석상봉 동문(44회·투수)이 차지했다.

우승한 제44회는 제38회(1차전 · 16:16 추첨승) 제45회(2차전 · 16:6) 제43회(8강전 · 11:10)를 차례로 물리치고 준결승전에 진출, 제39회를 16:12로 제압해 결승전에 올랐다.

준우승 제27회는 제22회(1차전)

7:0) 제31회(2차전·기권승) 제28회(8강전·15:6)를 차례로 이기고 준결승전에 올라 제26회와 격전(9:4) 끝에 결승전에 올랐었다.

한편 앞서 지난 10월 7일(일) 오전 경남고 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개막식에는 동문·가족 4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연합팀 대회에서는 제17회가 주축이 된 흘수기수팀이 제14회 동문이 주축으로 만들어진 짹수기 수팀을 11:5로 누르고 우승한 바 있다.

이번 대회 입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근세승 ▶구승 · 세마화 ▶군수승
· 제27회 ▶3의 · 제26회 제39회

▲ 개인상 ▷ 최우수 선수상 : 선상복

▶개간공 ▶최구구 전구공 : 육강공
[44회] ▶최우수 토스사 : 젠투연[44회]

▶ 최구구 구구상 : 신도경(44회)
▶ 타격 1위 : 안병규(44회 · 7할5푼) ▶
타격 2위 : 김정학(44회 · 6할8푼) ▶ 타
격 3위 : 조영일(27회 · 5할5푼5리) ▶
감투상 : 황귀량(27회), 이현(44회) ▶ 미
기상 : 황영훈(27회 · 황호경 아들), 최
주섭(44회) ▶ 인기상 : 황호경(27회) ▶
수훈상 : 전창민(27회) ▶ 감독상 : 김현
석(44회)

신우회, 제5회 동문초청의 밤

올해로 6년차에 들어서는 용마기독동문회인 신우회가 “아름다운 인생”이란 주제로 지난 10월 2일 작은 음악회를 열어 동문초청의 밤 행사를 가졌다.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강형식 목사(26회 · 예인교회 담임)를 비롯하여 회원, 비회원 동문 총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예배라는 딱딱한 형식 대신 추억어린 영상과 음악

으로 구성되어 동문들을 하나로 이끌었다. 까까머리에 검정 교복을 입고 교정을 드나들던 옛모습을 시청하고, 교가 제창, My Way에서부터 Autumn leaves, 상록수, 편곡된 찬송가 등을 부르며 옛 시절의 감격에 취한 동문들은 살아 온 날들을 재조명하고 살아 갈 날들을 서원하며 동문 초청의 밤을 보냈다.



전통건강죽 / 영양맞죽의 名家-본죽

본죽은 미리 만들어 놓고 파는 죽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세심하게 재료를 준비하고
고객의 주문과 동시에 한그릇 한그릇 어머님의 정성으로 맛을 냅니다.
본죽은 고객의 건강과 맛, 정성어린 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Korean Traditional Porridge Restaurant
韓国の伝統おかゆ専門店

본죽®

대표 김용희

(28회 · 전 롯데자이언츠야구단 감독)

011-810-1705

A yellow book with a black spine and a gold border,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Take-Out

고급선물포장

미리 전화 주시면 바로 포장해 가실 수 있습니다.

(051) 322-6288 (부산 모라점)



제25회 우승 - 용마골프

- 제19회 준우승 · MVP 송영근(25회) 차지
- 본부 제10회 용마골프대회

지난 10월 29일(월) 부산C.C에서 열린 본부동창회 주최 제10회 기별대항 용마골프대회 단체전에서 제25회 동기회가 대망의 챔피언컵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다.

제25회는 8명의 선수(김진철, 박광용, 박종찬, 손기천, 송영근, 오양득, 이인구, 조광제)가 출전하여 베스트스코어 3명(송영근·77타, 박광용·78타, 이인구·79타)의 타수를 합산한 결과 총 234타를 쳐 237타의 성적을 낸 제19회를 3타차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제8회 대회 때 우승을 한 제19회도 8명의 선수가 출전하였으나 237타(김봉호·77타, 성낙준·80타, 장홍의·80타)로 아쉽게 준우승을 하였다.

지난 9월 12일 KNN방송국 주최 고교동문 골프최강전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메달리스트상을 받은 김영목 동문이 참가한 제23회는 239타(김영목·76타, 이부식·81타, 이영훈·82타)로 3위를 차지하였다.

개인전 - 송영근 (25회)
시니어 - 이철세 (13회)
여성부 - 이귀옥 우승

이날 개인전 MVP는 송영근(25회) · 뉴페리어 방식 · 총 77타 · 핸디 6 · NET 71(-1), 메달리스트는 노기태 동문(20회) · 75타)이 차지했다.

시니어부 우승은 이철세(13회), 메달리스트는 김달경 동문(11회)이, 여성부 우승은 이귀옥(23회 이영훈 동문 부인), 메달리스트는 문성애(20회 장영훈 동문 부인)가 각각 차지했다.

안강태 본부 회장(11회 · 대선조선(주) 대표이사)이 주재한 이날 대회는 오전 10시 30분 190명의 선수들이 48개 조로 나뉘 총 경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4개 흘(1.5, 10, 15흘)에서 동시에 오프했다.

특히 동문 부인이 28명이나 출전, 대회 사상 최다 참가를 기록했고, 유재진 본부 부회장(22회 · 부산스타자동차(주) 회장)이 올해에도 홀인원상으로 벤츠(B200) 1대를 제공, 대회를 한층 빛내 주었다.

유재진 동문(22회) - 벤츠 제공(홀인원상)
문영희(25회 박종찬 동문 부인)
- 13번홀에서 이글

한편 클럽하우스 로비에는 협찬내용별로 기탁자 명단을 적은 입식 현수막을 세워 협찬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오후 5시 15분경에 거행된 시상식 겸 단합회에서 안강태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선 · 후배와 가족이 한데 어울리는 한마당 축제인 용마골프대회에 올해도 변함없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준 뜨거운 동문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특히 많은 협찬에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이날 시상식에는 13번홀에서 이글을 한 문영희(25회 박종찬 동문 부인)에게는 유

재진 동문(22회)이 급히 마련한 꽃다발이 수여되기도 하였다.

행운상으로는 골프백세트, 바람막이 셔츠, 여성 수제화, 골프공, 사우나 헬스 이용권 등이 준비되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한성참치세트와 씨푸드 부페권 등이 기념품으로 전달되었다.



△시타식에서 참가 글피들이 멋진 샷을 보여 주고 있다.

▷ 모강욱(10회) 남선곡산(주) 대표이사 = 10만원

▷ 안강태(11회) 본부 회장 · 대선조선(주) 대표이사 = 200만원

▷ 박병선(14회) 본부 부회장 · 전대회운영위원장 = 30만원

▷ 신준호(14회) 재경동창회 고문 · 대선주조(주) · 롯데우유(주) 회장 = 100만원

▷ 윤승홍(14회) 재경골프명예회장 · (주)지에프 회장 = 100만원

▷ 김용채(29회) 본부 부회장 · 럭키화성 대표 = 10만원

▷ 박명진(33회) 본부 부회장 · (주)고려개발 대표이사 = 20만원

▷ 김현호(16회) 대회운영위원장 · 용마골프회장 = 50만원

▷ 송규정(16회) 본부 부회장 · (주)원스틸 회장 = 50만원

▷ 양성민(16회) 본부 부회장 · (주)조광페인트 회장 = 50만원

▷ 김길제(18회) 본부 부회장 · (주)MSC 대표이사 = 50만원

▷ 남진현(19회) 본부 부회장 · (주)신태양건설 회장 = 50만원

▷ 이용호(19회) 본부 부회장 ·

용마골프 협찬

▷ (주)일신설계 회장 = 50만원

▷ 황태원(19회) (주)기병 대표이사 = 50만원

▷ 노상우(24회) (주)문화통신 대표이사 = 10만원

▷ 김진철(25회) 본부 부회장 · (주)D.S.I 회장 = 50만원

▷ 김용채(29회) 본부 부회장 · 럭키화성 대표 = 10만원

▷ 박명진(33회) 본부 부회장 · (주)고려개발 대표이사 = 20만원

▷ 재경동창회 = 100만원

▷ 용마회 = 50만원

▷ 평마회 = 50만원

▷ 신준호(14회) 재경동창회 고문 · 대선주조(주) · 롯데우유(주) 회장 = 대선 시원소주 30상자 (1BOX 20병)

▷ 여성렬(17회) 서면골프 사장 = 골프양말교환권 30세트

▷ 서부원(18회) 한솔공인증개 대표 = 스프레이식 미니소화기 30점

▷ 임우근(19회) 한성기업(주) 대

표이사 = 한성참치, 명란젓 갈 40% D.C

▷ 장상배(20회) 삼성패션 대표 = 빈풀 골프 바람막이 2점

▷ 유재진(22회) 본부 부회장 · 부산 스타자동차(주) 회장 = 홀인원상 벤츠 B200 1대 · 골프백세트 3조, 모자 170개 · 우산 30개

▷ 임철호(24회) 씨푸드부페『오아제』 대표 = 베�티켓 250매

▷ 최우철(30회) 동진설유(주) 대표 = 뉴잉 골프공 5BOX

▷ 오용환(31회) 용마횟집 대표 = 식사상품권 5만원권 5장

▷ 김재익(33회) 삼삼골프회 회장 · 동원물산 대표 = 비코 수출용 여성 수제화 교환권 5점

▷ 이관우(32회) 노보텔 총괄 본부장 = 노보텔 사우나 헬스 자유피움권 50매

▷ 강병중(주) 네센 회장 = 베이드 골프공 50Box

▷ 윤승호(부산칸트리클럽) 대표 = 골프백, 보조가방, 신발

용 · 마 · 춘 · 추

가을의 정취에 흠뻑 빠진 어느 하루 멋진 날

- 용마산악회 간월산 등산 후기

김미란 (33회 김법영 동문 부인)



돌탑들이 어딘지 약간은 부조화스러웠다고나 할까요? 더구나 바로 밑 엄청나게 주차되어있는 차들을 보니 그다지 달갑지는 않았구요. 이전의 모습이 그리웠답니다.

내려오는 코스 역시 예정된 코스가 아니었는데 훨씬 좋았답니다. 약간 가파른 곳도 있긴 했지만 내려올수록 예쁜 가을색으로 물든 나무들은 지나가는 가을의 아쉬움을 달래주듯 여친들의 마음을 물들이기에도 충분했답니다. 우리의 매인찍사는 후미를 담당하느라 우리 33과는 점심을 함께 한 것 말고는 얼굴도 보기 힘들었구요. 종만찍사께서 부지런히 여친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나를 엄청 바쁘지요. 감사. 오기록 선배님께서도 33여친들의 모습을 이쁘게 담아주셨구요, 감사드립니다. 아마 원래코스였다면 이 계곡길로는 못 오고 올라왔던 곳으로 하신했을 텐데 그러면 가을의 모습은 그다지 크게 느끼지는 못했겠지요. 낙엽과 단풍으로 어우러진 멋진 가을산행 말입니다. 오히려 코스를

바꿔 훨씬 좋은 산행이 되었던 것 같습 니다.

산행 종료 후 순서대로 차를 타고 20여분 이동해 목욕하고 식당에서 식사하며 행사를 마무리 했지요.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역시 시상식이었죠. 작년 우승했던 우리 33은 올해는 3등상도 기대 못했는데 뜻밖에 2등상을 수상해 무척 기뻤답니다. 우승은 작년 1명 차이로 준 우승한 23회 선배님들이 올해 한층 단결된 모습으로 큰 차이로 우승을 거머쥐었지요. 박수갑 회장님의 합박웃음과 애살령여리신 멋진 형수님들까지 환호성을 지르며 저희도 마음껏 축하를 해주었답니다. 내년에도 꼭 우승하세요!!! 모든 행사를 마치고 부산으로 향했는데 도로사정도 좋아 일찍 부산진역에 도착하는 바람에 우리도 가볍게 한잔 더하고 헤어졌답니다. 상금도 탔으니 말입니다. 아마 23회도 멋지게 한잔 하셨겠지요?

나날이 쌀쌀해지는 요즈음,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산행에서 빛 때까지 즐겁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일 년 동안 수고하신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임기 동안 후덕한 인덕으로 무탈하게 임무를 수행하신 회장님과 총무님, 그리고 회장 사모님께 사랑과 존경을 아울러 보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길따라 관광버스를 타려 부산진역에 모였지요. 아마 출발시간이 9시였죠? 반가운 얼굴들이 한두 분 보이며 큰 차 4대가 아니라 큰 차 2대, 미니버스 4대 올해 우승후보인 23회가 미니버스 한대 차지하시고 우리 기(21명) 역시도 37회 후배 2명을 태워 한 차를 만들었지요. 올해 마지막 산행이 어선지 좀 가까운 산으로 정해 많은 동문들의 동참을 이끌어낸 듯 보였습니다. 늘 집행부의 수고스러움이야 널려 무삼하리오.

버스가 언양톨게이트를 빠져나가면서부터 정체가 시작되었는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내려서 걷기도 했고 담배 한대 피는 여유로움까지…, 급기야 집행부의 긴급 의논 끝에 코스를 반대로 타기로 하고 차를 돌렸는데 참으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지만해도 우린 단지 단풍철에 행락객 때문에 밀리는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노총의 데모가 있었다네요. 예정보다 늦은 시간에 산행기점에 도

양웅석 동문(11회)

간디스토마가 담관암 일으키는 과정 최초 규명



부산 봉생 병원 명예원장 양웅석 동문(11회·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내과 학교 교수)이 책임을 맡고 있는 부산 봉생 병원 소화기병센터 연구팀이 한국의 풍토 병인 간디스토마의 배설물이 담관암을 일으키는 의학적인 과정을 밝혀내었다고 지난 11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췌담도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간디스토마 관련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양동문과 그의 연구팀이 이룩한 이번 성과는 간디스토마가 담관암을 일으키는 정확한 기전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번 연구는 낙동강에서 잡은 잉어에서 간디스토마를 채취, 배양하여 배설물을 분리한 뒤 개의 담관 계 세포주에 처리, 염증 유발 물질과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하는지 또는 억제하는지를 살폈다.

천신일 동문(15회)

63억원 사회 환원



천신일 동문(15회·재경동창회 고문·(주)세종나모여행 회장)은 지난 11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63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보유주식 50만주 분을 고려대·연세대·포항공대·국립중앙박물관·한국민속박물관 등 8개 단체에 기부했다.

이날 천동문은 지난해 10월 15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세종나모여행 주식 110만 5,000주를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보호 예수가 풀린 50만주를 1주당 1만 2,700원에 매각해 먼저 기부했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천동문은 1982년 세종여행사를 설립했고, 지난해 7월 소프트웨어개발 계열사인 나모인터넷티브와 세종여행을 합병했다. 현재 고려대 교우회장·대한레슬링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오거돈 동문(21회)

한국해양대 신임 총장 내정



오거돈 동문(21회·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난 11월 16일 한국해양대에서 열린 총장 선거에서 3차 투표까지 가는 집전 끝에 최다 득표를 하여 제5대 해양대 총장 1순위 임용후보로 선출되었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오동문을 제5대 해양대 총장으로 임명한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행정학 박사이기도 한 오동문은 행정고시(14회)에 합격한 후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대통령 행정비서관,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부산시장 권한대행, 해양수산부장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동기회장, 본부 동창회 부회장 등을 지낸 오동문은 맨형이 오완수(11회·대한제강(주) 회장) 동문으로 본부 동창회 자문위원이다.

동기회 소식

경고-부고 친선바둑대회

재경 14K와 13P작년에 이어 두번째 친선의 장 마련

재경 14K와 13P가 지난 10월 6일 선능역부근 강남기원에서 작년에 이은 두번째 친선바둑대회를 가졌다. 경고측은 회장 이현영을 비롯한 25명의 인원이, 부고측은 회장 배양일을 비롯한 23명의 인원이 모여 양교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했다. 이날 대회에서 경고가 23승, 부고가 13승을

제14회 경부합동 등산회

해마다 깊어가는 가을날이면 부산과 서울의 중간쯤 어디에서 만나오던 14K 부산·서울 등기들이 올해에는 일요일인 10월 28일 구미 금오산에서 만나 합동등산회를 갖고 선물 보따리도 풀고 얘기도 나누며 즐거운 하루를 함께 했다.

이날 서울팀은 아침 7시 30분 지하철 교대역 앞에서 2대의 버스에 올라 출발, 분당 부근의 등산들을 고속도로 톨게이트부근에서 모두 태우고 금오산으로 향했다. 11시경 부산팀과 만나기 앞서 지나는 길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들러 고인의 업적과 생애를 둘러보고 추모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부산팀도 이승오 회장을 비롯 59명의 등문들이 2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올라와 서울팀보다 먼저 도착, 금오산으로 올랐는데 한 시간 가량 먼저 도착한

거두었는데 승패를 떠나 환갑 넘어 수담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한편 대회가 끝난 뒤 식당에서 시작한 뒤풀이가 4차까지 갔다는 후문.

특별히 이날 행사를 위해 이현영(14K 회장) 동문과 김형수 동문이 각각 10만원과 70만원을 찬조했다.



서울팀과 내려오는 길에 마주쳐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의 등산은 아예 정상에는 오르지 않고 대혜폭포와 도선굴까지만 오르기로 했었는데 벌써 낙엽이 갈린 등산길은 전국서 모여든 등산객들로 크게 붐볐다. 오후 1시 30분경 주차장 인근 송정식당에 모인 등기들이 부산팀이 갖고 온 생선회와 막걸리를 마시며 얘기도 나누고 웃고 떠드는 동안 언제 가을날이 어두워졌는지 아쉽기만 한 하루가 저물어갔다. 올해 주최측인 부산팀 이재인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경품뽑기 행사를 앞서 이현영 서울회장은 모두들 건강하게 내년에도 만나자고 견배 제의를 했다.

각 동기·지역·직능·동호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17회 28일 오후 7시 하모니웨딩타운 3층 소나타홀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부부동반) ▲18회 13일 오후 7시 금강예식장에서 부부동반 송년의 밤 ▲21회 21일 오후 6시 30분 「터존뷔페」에서 총회 및 송년회(부부동반) ▲28회 6일 오후 7시 하모니웨딩홀 3층 소나타홀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29회 20일 오후 7시 민락동 「바다공원」에서 송년회 ▲31회 북부지회 송년회 17일 오후 6시 토곡사거리 국민은행 옆 「청담」 서부지회 송년회 18일 오후

7시 초량화교 거리 「장춘방」 ▲33회 7일 오후 9시 「금잔디노래방」에서 송년회 ▲울산지역동창회 13일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정기총회 및 용마의 밤 ▲마창지역동창회 13일 오후 7시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5층 연회장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재뉴욕동창회 8일 오후 6시 30분 팔리새디움 대원에서 부부동반 송년회 ▲동대회 13일 오후 6시 30분 「부페파크」에서 제34차 정기총회 ▲용마회 26일 오후 7시 국제호텔 천마홀에서 송년회

제18회 포항낚시대회 성황리에 개최



지난 10월 28일 제18회 동기회는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2리 앞바다에서 가을철 낚시대회를 가졌다. 김종철, 김성수 두 동기생이 공동대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행사에는 31명의 동기생이 참가하여 각축전을 벌였다.

청명한 날씨 속에 개최된 이날 대회에서 흥창우 동문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고, 권교칠 동문은 준우승을 차지했

다. 이밖에 박영복, 육병규, 김홍국, 박도형, 최상덕 동문이 감투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김종철 대회장의 외사촌이 운영하는 인근 두원리 삼팔횟집에서 진행되었으며 시상식 후 각종 자연산 회를 실컷 즐기며 심신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이날 부산으로 돌아온 일행들은 간단한 저녁식사를 한 뒤 노래와 술이 함께 어우러진 신명나는 뒷풀이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위해 김종철 대회장을 비롯하여 김성수, 남두진, 김길제 동문 등이 협찬을 하였으며 김길제 고문은 대형 버스까지 제공해 동문들의 이동을 도왔다.

제19회 경부합동산행

제19회 동기회는 11월 4일(일) 충남 대둔산에서 경부합동산행을 가졌다. 부산 서울 뿐만 아니라 마산, 창원 동문까지 합하여 총 80명의 인원이 참가했는데, 특히 멀리 캐나다에서 석용태, 이시성 동문도 참석하여 19회 동기회의 단합과 우정을 다지는데 일조했다.

먼저 대둔산 케이블카로 입산한 뒤 구름다리를 지나 정상에 오른 19회 동기회는 계곡길로 하산하여 온천목으로



피로를 푼 후 동동주를 곁들인 만찬을 나누며 재회의 기쁨과 작별의 아쉬움을 달랬다.

제28회 경부합동산행

매년 서울·부산 28산우회에서 번갈아 개최하는 경부합동산행이 올해는 부산 28산우회 주최로 동문가족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4일(일) 부산 금정산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28동기회 부산본부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진행된 이번 산행은 정인식 동문의 리드로 범어사→북문→고당봉→동문 코스를 밟으며 만주의 정취를 감상했고, 산행의 별미로 김성희 총무가 찬조한 석빙고를 나눠 먹으며 학창시절의 아련한 추억에 젖어들기도 했다. 산행 마무리를 겸하여 허심정에서 온천목으로 산행의 피로를 풀고난 일행은 소갈비의 부드러운 맛과 감칠맛나는 국물이 있는 갈비찜으로 유쾌한 만찬을 즐겼다. 한편 김명보 동기의 지휘로 목청껏 후라경고를 2번



외친 후 식당을 나온 등문들은 쉽게 헤어지지 못해 좁은 도로에서 한참 손을 잡고 흔들다 내년 경부합동산행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이날 산행을 위해 찬조해 준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김용진=48만 4천원 △한명재=30만원 △이원철=20만원 △김양태, 박영규, 김태완, 이인재=각각 10만원

△김형진=막걸리, 도토리묵 찬조

△김명영=버스비 일부 찬조

15회 소식

일오문화유적답사회(회장: 손부홍)는 지난 11월 3일 신라의 천년 고도 경주로 제6차 문화유적 답사에 올라 첫째 날은 국립 경주박물관, 안암지, 분황사, 황룡사지, 둘째 날은 천마총, 불국사, 석굴암, 감은사지 등의 답사로 1박2일의 일정을 마쳤다.

모임 이름	모임 일시 및 장소	회장	참석인원	비고
일오문화유적답사회	11/3~4 경주 일원	손부홍	12명	제6차 문화유적답사
삼팔회	11/8 19:00 「중남해」	허두영	16명	제79차 정기 월례회
화친회	11/13 18:30 「죽마고우」	안충웅	10명	제179차 정기 월례회
가람회	11/14 19:00 「죽마고우」	김창구	16명	정기 월례회
의약회	11/15 19:00 「송죽일식집」	장정분	8명	정기 월례회
마즐래	11/18 11:00 등기회관	이승남	10명	제21차 마작대회
동기회 자문위원회의	11/20 19:00 「급문」	김경일	10명	제2차 자문위원회의
사하회	11/27 18:30 「이려갈비」	김종태	9명	제75차 정기 월례회

경열회 소식 (재경 제10회 동기회)

경열회는 12월 10일 오후 6시 양재동 소재 스

포타임 오렌지홀에서 송년 정기총회를 가졌다.
각종 모임의 활동상은 아래 표와 같다.

모임 이름	모임 일시 및 장소	회장	참석인원	비고
사니조아	11/10 사파산	이계창	4명	사파산 등산
	11/18 대모산, 구룡산		4명	대모산, 구룡산 종주
	12/8 대모산			
	12/16 수리산			
강북화요회	11/6 13:00 「부민옥」	정갑환	25명	월례회
	12/4 13:00 「부민옥」			
정우회	11/15 10:50 동작테니스장	정상수	8명	월례회
	12/20 10:50 평촌 중앙공원테니스장			
경록회	11/11 12:00 자유C.C	이정배	14명	월례회
	12/27 12:00 자유C.C			
강남화요회	11/11 12:30 「기와집순두부」	김해룡	20명	월례회
	12/18 12:30 「기와집순두부」			
동수회	11/11 14:00 금연 기원	김영덕	8명	월례회
	12/18 14:00 금연 기원			

경팔회 소식 (재경 제8회 동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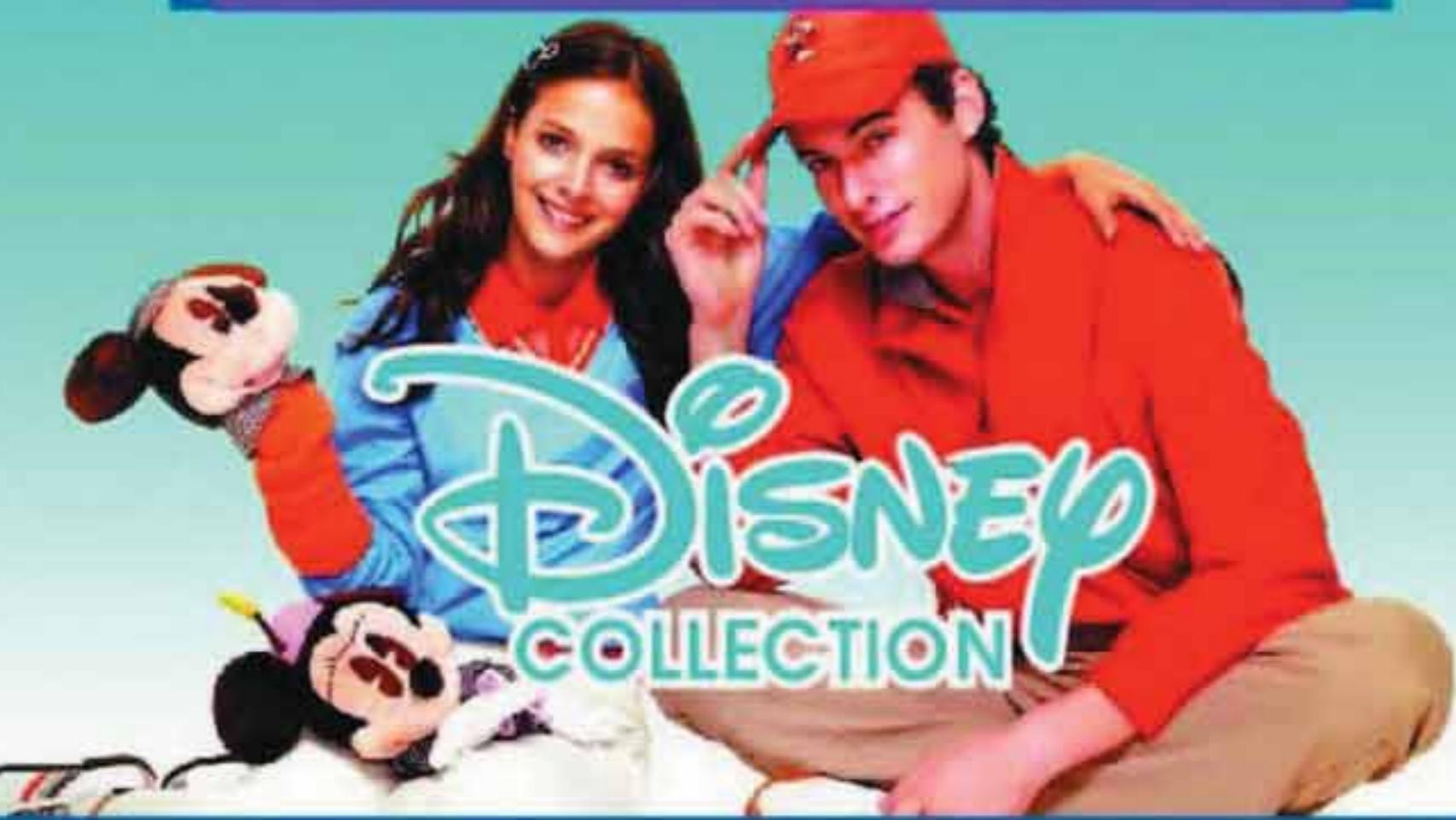
경팔회는 지난 10월 17일 청진동 흥진 옥에서 하반기 임시총회를 열어 2007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2008년 정기총회 겸 신년하

례회」로 변경 개최키로 결정하였다.

(일시 : 2008년 1월 8일 오후 6시, 장소 : 대치동 소재 「상제리제부페」)

모임 이름	모임 일시 및 장소	회장	참석인원	비고
산우회	11/2 북한산	김영철	10명	북한산 등산
	11/9 도봉산		12명	도봉산 등산
	11/16 수락산		13명	수락산 등산
	11/23 관악산		13명	관악산 등산
	11/30 북한산		13명	북한산 등산
잔디회	11/19 기흥C.C	배주원	11명	제161회 월례회
팔선회	12/1 한일기원	이유환	7명	정기 모임

최고급 GOLF WEAR 상설 할인매장



디즈니 GOLF WEAR 상설 할인 서면점

서면롯데호텔 서문 아래쪽 로얄볼링장 1층 TEL. 051-815-3355~9 FAX. 804-1810

2007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서민석
30회 세무사
(051-628-1296)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 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 받는다.

▶ 의료비공제 범위 확대

의료비공제가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된다.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의료비공제 대상이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연간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면 그만큼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이중공제 금지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공제만 인정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빼고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예컨대 소득이 3천만원인 A씨(의료비 공제액 110만원)가 올해 사용한 의료비 200만원 중 신용카드로 150만원을 결제했다면 중복공제 금액은 신용카드 의료비 150만원에서 '총의료비 지출-의료비공제액'인 90만원을 뺀 60만원이다. A씨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중복공제 금액인 60만원을 뺀 금액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확대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의 경우 지난해까지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태권도 학원과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내는 강습료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나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타

건당 100만원 씩 소득공제가 되는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 비용의 연령제한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만 20세 초자녀의 혼인, 남 60세(여 55세) 미만 부모님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건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정치기부금도 종전에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만 환급된다.

서면 GOLF 회원권 매매전문

골프·콘도·WEAR·GOLF채·시상품·상패

빛과 바람까지 설계한 김해 롯데 SKY Hill C.C

회원 1명, 그린피 면제, 자정인 1명, 주중 그린피 면제, 분양금 2억원

보라·에덴밸리·정산·해운대 C.C 분양주관사

부산시 진구 부전동 514-1번지(서면롯데호텔 서문 아래쪽 로얄볼링장 1층)
TEL : 803-0654~5, 817-0606~8 FAX : 804-1810

17회 여성열 011-854-0707 25회 여성조 010-2552-3203

제 39 회 본부회장기 기별야구대회(부산) 전적 상보

— 이 팀별 대전 전적은 역대 기별야구대회 기록 보존을 위해 해마다 대회 성료 후 일괄 개재하고 있습니다 —

결승전

제27회 - 제44회

(11월 3일 경남고 14:0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7회	8	3	1	2	1	0	0			15
제44회	5	0	1	5	10	0	x			21
제27회	33	7	12	7	2	1	9	6	7	8
구분	타수	득점	안타	타점	도루	회	사구	삼진	전루	핸디
제44회	41	12	22	22	1	1	4	3	5	.

▶ 투수 = 황귀량
포수 = 조영일
▶ 2루타 = 황귀량 최극림

▶ 제27회
▶ 투수 = 정도영 장문영 석상봉
포수 = 조상희 정진식
▶ 흠 런 = 전광렬(1회 3점)
▶ 3루타 = 정진식
▶ 2루타 = 전광렬 정진식 석상봉

준결승

제39회 - 제44회

(10월 28일 경남고 10:0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9회	5	0	1	0	2	4	0			12
제44회	1	6	2	1	2	4	x			16
제29회	37	10	15	10	0	1	2	3	6	2
구분	타수	득점	안타	타점	도루	회	사구	삼진	전루	핸디
제44회	35	16	17	16	0	2	6	4	7	.

▶ 제39회
▶ 투수 = 흥지기 하성포 문병운
포수 = 이승기
▶ 2루타 = 정호현 이종운 윤동배
이상기

▶ 제44회
▶ 투수 = 정도영 석상봉 권상근
포수 = 정진식
▶ 흠 런 = 안병구(2회 1점) 정진식(4회 1점)
▶ 3루타 = 조상화
▶ 2루타 = 신진수 최주섭 김현석

제26회 - 제27회

(10월 28일 경남고 12:0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6회	0	0	0	0	4	x	x			4
제27회	4	4	1	0	x	x	x			9
제26회	24	4	6	4	2	0	2	2	3	.
구분	타수	득점	안타	타점	도루	회	사구	삼진	전루	핸디
제27회	28	9	13	9	5	0	1	2	4	.

▶ 제26회
▶ 투수 = 김현수 김택영 임영제
포수 = 김광대
▶ 2루타 = 김성관

▶ 제27회
▶ 투수 = 조영일
포수 = 황귀량 최극림

8강전

제39회 - 제42회

(10월 27일 경남중 13:3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39회	1	1	0	2	4	2	0			10
제29회	0	0	0	1	0	0	0			1
제39회	31	9	9	4	0	2	7	3	1	.
구분	타수	득점	안타	타점	도루	회	사구	삼진	전루	핸디
제42회	22	1	4	1	4	0	5	5	5	.

▶ 제39회
▶ 투수 = 하성포 문병운
포수 = 이승기
▶ 흠 런 = 이종운(5회 3점)

▶ 제42회
▶ 투수 = 이승훈 김영환
포수 = 이영도

제19회 - 제26회

(10월 27일 경남고 13:3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19회	6	0	1	1	0	0	0			8
제26회	0	2	1	3	1	0	2			9
제19회	32	5	11	5	4	0	1	10	7	3
구분	타수	득점	안타	타점	도루	회	사구	삼진	전루	핸디
제26회	32	9	12	9	14	0	5	5	6	.

▲ 제19회

▶ 투수 = 정순일
포수 = 남진현
▶ 3루타 = 정학영

▲ 제26회

▶ 투수 = 김현수
포수 = 김광대
▶ 2루타 = 김광대 박상호

제43회 - 제44회

(10월 27일 경남중 15:3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43회	4	0	0	0	2	2	0			8
제26회	3	1	8	0	0	0	x			12
제43회	30	4	7	4	3	0	5	5	10	4
구분	타수	득점	안타	타점	도루	회	사구	삼진	전루	핸디
제44회	30	12	10	12	2	1	5	4	6	.

▲ 제43회

▶ 투수 = 윤태성, 김대훈, 김영희
포수 = 김기봉
▶ 흠 런 = 김대훈(4회 1점, 6회 1점) 유법권(2회 2점)
▶ 3루타 = 김종근
▶ 2루타 = 이재홍

▲ 제44회

▶ 투수 = 정수일, 김대훈, 김영희
포수 = 송진우
▶ 2루타 = 김종인 백홍문

제45회 - 제46회

(10월 21일 경남고 11:30)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45회	2	1	0	0	0	9	4			16
제26회	0	0	5	0	1	0	0			3
제45회	39	16	19	16	0	9	2	11	.	.
구분	타수	득점	안타	타점	도루	회	사구	삼진	전루	핸디
제45회	32	6	11	6	6	0	1	8	6	.

▲ 제45회

▶ 투수 = 김현수 장문영 석상봉
포수 = 김정학
▶ 흠 런 = 전광렬(1회 2점)
▶ 3루타 = 정도영
▶ 2루타 = 석상봉 김현석 류현승 안병규 임정훈

▲ 제27회

▶ 투수 = 조영일 황귀량
포수 = 황귀량 최극림

▲ 제28회

▶ 투수 = 김동규 소유남 김준연

▶ 포수 = 김명보 김동규

▶ 3루타 = 김부윤 김이청

어디서 무엇을

제 4 외

김기홍 = 11월18일 장남 세웅군 결혼. 울산 중구청 2층

제 6 외

이길상 = 국민생활체육 부산시 그라운드골프연합회 회장, 12월 14일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거행된 국민생활체육 유공자 시상식에서 우수회원 단체상 수상.

정태권 = 12월9일 별세

제 8 외

이상식 = 11월9일 별세

제 9 외

김용관 = 부산시 사상구 주례1동 746-1번지 (주)세이븐코리아 ☎ 051)462-1841~2

배건섭 =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무 악현대APT 111동 202호 ☎ 02)730-1057

안병환 =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 450 성산시영APT 2동 801호

조석무 = 11월18일 차녀 은지양 결혼. 유스호스텔

차상구 = 부산시 남구 용호1동 LG 메트로시티 130동 2302호 ☎ 051)612-6622

제 10 외

김영복 = 12월27일 장녀 경희양 결혼.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내 상가 2층

박칠민 = 경기도 군포시 당동 873 번지 쌍용APT 102동 2004호

서진총 = (월간)수필문화사의 수필 가로 중앙무대 진출. 10월19일자 「향기나는 우편집배원」이란 수필로 최종심사 통과.

양희복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참솔마을 월드메르디앙 111동 1103호

이승준 = 11월30일 박내딸 지선양 결혼. 양재동소재 온누리교회(횃불선교센터)

이해수 = 경북 구미시 송정동 3번지 푸르지오캐슬 109동 1002호

이효술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34번지 상암월드컵 1단지 106동 1106호

임호옹 = 부산시 남구 용호2동 롯데낙천대APT 103동 102호

장인목 = 부산시 중구 보수동1가 133-2번지 석제빌딩 4층 ☎ 051)228-7015

전규삼 = 10월31일 별세. 분당 서울대병원

정창진 = 12월3일 모친상. 구로동 강남병원

진강 = ☎ 011-1989-3534

제 12 외

김종성 = 12월8일 차남 재욱군 결혼. 노블리아웨딩홀

김준철 = 11월15일 별세. 부산대학병원

김창진 = 9월7일 (주)풍강 화성공장 준공.

김현주 = 9월5일~9월11일 개인전. 백송갤러리

서병기 = 서울시 광진구 중곡4동 109-2번지 삼성로얄APT 501호 ☎ 02)447-0860, 011-9017-

3946

서진홍 = 9월9일 장남 상준군 결혼. 힐트리츠칼튼

안영규 = 12월8일 경희요양병원 개원(마산)

장승재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장백APT 706동 1002호 ☎ 052)212-9589, 017-870-4383

최건성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34-6번지 ☎ 02)427-2162, 019-290-2169

최경균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717-2번지 송내주공APT 103동 102호

황태영 =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716-5번지 ESSAAPT 109동 1501호 ☎ 02)3491-5370, 010-6485-3939

제 13 외

강귀동 = 11월15일 모친상. 부산장례식장

김정길 = 11월22일 별세. 울산 동강병원 장례식장

제병민 = 12월1일 아들 결혼. W시티웨딩홀

조정현 = 11월12일 장인 별세. 분당 서울병원

제 14 외

김창효 = 11월17일 장남 결혼.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컨벤션홀

박실 = 10월29일 별세. 일산 국립암센터

반성호 = 12월22일 딸 주희양 결혼. 늘봄공원 3층 예식장

이문기 = 11월2일 부친상. 일산병원

천광열 = 10월24일 모친 별세. 부산의료원

최병철 = 11월17일 장남 성호군 결혼. 삼성화재 3층 국제회의실

최봉현 = 11월21일 장모상. 고양시화정동 명지병원

횡원재 = 11월3일 차녀 결혼. 전쟁기념관 궁중대례청

<14회 동기회 사무실 이전>

12월3일 사무실 이전.
중앙동 2가 49-13번지
부산빌딩 3층 301호
T.051)241-6014 F.051)244-6014

제 15 외

김승일 = 10월14일 삼녀 민경양 결혼. 강남 목화웨딩문화원

이은수 = 11월3일 장녀 정의양 결혼. 서울 노보텔앰배서더

정수방 = 10월27일 삼녀 유경양 결혼. 부산 베스코센텀호텔

제 16 외

공명규 = 11월10일 딸 쥬리아양 결혼. 미국 알링턴

심현일 = 9월16일 별세. 평택 굿모닝병원

엄주태 = 10월23일 별세. 동마산병원

여성국 = 12월8일 아들 정섭군 결혼. 크라운호텔

이상철 = 11월17일 장남 동준군 결혼. 서울 웨딩의전당

이정원 = 10월23일 모친 별세. 삼성의료원

하희진 = 11월25일 아들 결혼. 서울 노보텔앰배서더

한이현 = 11월27일 아들 승군 결혼. 서울 신라호텔

피 · 플 · 파 · 크

복한병원

허영도 = 10월20일 장남 결혼. 해운대 그랜드호텔

제 22 외

김종인 = 11월30일 장녀 결혼. 인터컨티넨탈호텔

김창두 = 10월28일 딸 결혼. 서울대학교 내 앤자니어하우스

변철규 = 12월5일 모친상. 현대아산병원 30호 영안실

안정환 = 12월1일 딸 결혼. 감사원 별관 4층 대강당

이영화 = 10월14일 아들 결혼. 강남 노보텔앰배서더

이철곤 = 11월11일 딸 결혼. 삼성동 공항터미널예식장

제 23 외

구춘옥 = 11월18일 장녀 결혼. 센트럴시티 5층 체리홀

제 24 외

김용식 = 10월11일 부친 별세. 아산병원

박인호 = 12월8일 장녀 결혼. 베스코컨벤션 로얄홀

박정문 = 전 기아자동차 부사장, 광진포레시아(세계적 자동차 부품회사인 포레시아와 합작)에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

변정규 = 12월5일 모친상.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

윤우학 = 10월20일 딸 결혼. 강남 삼정호텔

유인환 = 재브라질, 10월28일 모친 별세. 강남 삼성병원

이근배 = 11월26일 부친상.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최은봉 = 11월8일 장인 대전 국립현충원 안장식(10월14일 별세-호주)

제 25 외

강수명 = 전 국방연구위원회 소장, 평택 대학교 안보과 교수로 취임. ☎ 010-5072-4406

김동령 = 11월26일 모친상

김명 = 10월13일 장남 결혼

안영복 = 로트보이제과 반여 선수 촌점 개점. ☎ 011-9549-1812

우상조 = 10월28일 장남 결혼

정동렬 = (주)에이원스톡 대표이사. ☎ 010-6308-0150

한준석 = 11월26일 모친상

제 26 외

박상용 = 12월9일 부인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영안실 3호

박의영 = 부산시 동래구 사직 1동 74-58번지 9동 3반

이정곤 = 11월24일 장녀 육희양 결혼. 이리성결교회 2층 대예배실

총형택 = 11월24일 모친상.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1호

제 27 외

윤대수 = 11월3일 부친 별세. 목포대우병원 영안실

제 28 외

김용원 = 경기도 치과의사협회 고문변호사로 위촉.

김용희 = 전 롯데자이언츠야구단 감독, 신모라 사거리 동원아파트 상가내에 「본죽」 모리점 오픈.

김종성 = 12월9일 모친상. 부산 좋은강원병원 1호실

남병우 = 전 마산세무서 근무, 전

남 광주 정부전산통합2센타로 근무지 변경. ☎ 010-5188-2469

소유남 = 서울 강남역 1번 출구 근처 강남뉴스타일 805호에 서울사무소 개소. 현재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김현수동문도 동참. ☎ 010-2569-7292

유봉수 = 10월1일자로 울산세무서에서 중부산세무서 총무과장으로 전보.

이문섭 = 11월14일 부친상.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이윤규 = 12월24일 장녀 결혼

이증만 = 11월12일 부친상. 동아대병원

이증환 = 서울경제 이사대우 편집국장, 「자랑스런 성균관 언론인」으로 선정.

이춘성 = 10월22일 부친 별세. 삼성의료원

최강호 = 10월29일 장모상. 동아대병원

제 29 외

김대현 = 뉴욕경제인협회 추천으로 KOTRA 무역상 수상.

김태호 = 10월16일 장모상. 진해용원장례식장

박인균 = 10월26일 모친상. 부산남천장례식장

송경문 = 11월18일 장인상. 경기도 일산장례식장

송철호 = 12월7일 장인상. 부산감전동 부산전문장례식장

엄수돈 = 호주 골프학교 AGA 인수 운영.

이희진 = 11월3일 부친상. 해운대성심병원 영안실

장경모 = 부인, 서대문구 연희동 소방서 앞 「지오한방삼계탕」 개점. ☎ 02)385-5758

조진수 = 11월9일 빙모상. 침례병원

제 30 외

김경수 = 제19회 봉생문화상(문화부문) 수상. 월간 「현대시」로 등단하여 「하얀 육망이 눈부시다」, 「다른 시각에서 보다」,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 등 세 권의 시집을 펴낸 바

회비 납부 현황

(2007.12.14 현재)

1. 회장단 및 본부이사
<2007년도분>

- 회장 : 안강태(11회) 5000만원
- 자문위원 : 김병기(11회) 100만원
- 부회장 : 강수현(12회) 송규정(16회)
김길제(18회) 이용흠(19회) 김두영(20회)
이재호(21회) 박재상(22회) 박홍조(22회)
유재진(22회) 김진철(25회) 김두천(26회)
박상호(26회) 이원철(28회) 최강호(28회)
김용재(29회) 윤성덕(30회) 박명진(33회)
김두섭(34회) 정성윤(39회) 이상 200만원
임태영(40회) 100만원
- 명예부회장 : 김형오(20회) 100만원
- 감사 : 박철병(23회) 김태우(27회)
이상 100만원

3. 동기회Ⅱ(2006년도 미납분)

기수	본부납입금	모교야구 후원금	계
7		200,000	200,000
15		800,000	800,000
19	1,500,000	1,000,000	2,500,000
21	1,000,000	1,000,000	
23	1,000,000	1,000,000	
24	1,500,000	1,000,000	2,500,000
35	1,200,000	800,000	2,000,000
37	1,200,000	800,000	2,000,000
38	900,000	500,000	1,400,000
39	900,000	500,000	1,400,000
41	500,000	200,000	700,000
42	500,000	200,000	700,000
43	500,000	200,000	700,000
44	500,000	200,000	700,000
45	500,000	200,000	700,000
46	500,000	200,000	700,000
47	500,000	200,000	700,000
48	500,000	200,000	700,000
총	11,200,000	9,200,000	20,400,000

2. 동기회 I (2007년도분)

기수	본부납입금	모교야구 후원금	계
6	200,000		200,000
7	500,000		500,000
8			
9			
10	600,000	300,000	900,000
11	900,000	500,000	1,400,000
12	900,000	500,000	1,400,000
13			
14	900,000	500,000	1,400,000
15	600,000		600,000
16	1,200,000	800,000	2,000,000
17	1,200,000	800,000	2,000,000
18	1,200,000	800,000	2,000,000
19			
20			
21	1,500,000		1,500,000
22	1,500,000	1,000,000	2,500,000
23	1,500,000		1,500,000
24	1,500,000	1,000,000	2,500,000
25	1,500,000	1,000,000	2,500,000
26	1,500,000	1,000,000	2,500,000
27	1,500,000		1,500,000
28	1,500,000	1,000,000	2,500,000
29	1,500,000	1,000,000	2,500,000
30	1,500,000	1,000,000	2,500,000
31	1,500,000	1,000,000	2,500,000
32	1,200,000	800,000	2,000,000
33	1,200,000	800,000	2,000,000
34	1,200,000	800,000	2,000,000
35			
36	1,200,000	800,000	2,000,000
37			
38			
39			
40	900,000	500,000	1,400,000
41			
42			
43			
44			
45			
46			
47			
48			
총	30,400,000	15,900,000	46,300,000

※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한 밀거름(회비)이 필요합니다. *

<7면에서 받음>

제 33 회

이승상 = 9월31일 부친상. 동아대
병원 장례식장
김정석 = 10월13일 부친상. 남산동
침례병원 장례식장
김종욱 = 10월5일 장모상. 동아대
병원 장례식장

제 34 회

강윤모 = 10월11일 부친상. 장림동
청산전문장례식장
김승범 = 11월1일 모친상. 동래 대
동병원
김현용 = 11월30일 「대덕 툴링시스
템」 업장 개업. 사상구 괘법동 산

업용품 유통상가 17동 213호 ☎
011-885-5416

박성균 = 10월26일 모친상. 남천
전문장례식장

오송대 = 11월20일 부친상. 영락공
원

오주희 = 11월2일 부친상. 사상 부
산전문장례식장

옥창식 = 10월29일 별세. 강남성모
병원

제 37 회

김태중 = 12월6일 장인상. 강남성
모병원 11호실

박귀영 = 10월28일 모친상. 울산
태화호텔 옆 제일병원

배상수 = 11월28일 부친상. 동아대

장례식장
이호진 = 10월25일 모친상. 감천동
삼신장례식장

표성수 = 12월4일 모친상. 동아대
병원 장례식장

용마의 밤 협찬품

△김두섭(34회) · 해운대 김내과
원장 : 건강검진권 30만원권 3매

△한수열(40회) · 레드캡투어 부
신지점장 : 해외여행상품권 40
만원권 1매

△이관우(32회) · 노보텔 총괄 본
부장 : 사우나 · 수영장 자유이
용권 25매

모 · 교 · 소 · 식

경남 중 · 고 야구부 선수단 2007 송년회

- 본부동창회가 자리 마련



△신입생들을 포함하여 경남중 · 고 야구부 선수단 일동이 송년회를 마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였다.

본부동창회는 지난 12월 14일 중앙동 소재 「부페파크」에서 동계 훈련에 여념이 없는 경남중 · 고로 진학하여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 선수들은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였다.

양교 감독 · 코치 및 선수, 본부 사무국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송년회에서 내년에 입학 예정인 신입생들의 소개가 있었으며

중학교 선수들은 기초체력을 충실히 다져 모두가 경남고로 진학하여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 선수들은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였다.

이날 행사를 마친 선수단 일동은 본부동창회에 감사를 표하고 자주 격려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신태양건설(회장 박상호 · 26회)과
경남고 1사1교 결연

시민 · 기업 · 학교가 함께 하는 교육 공동체 구축과 실질적인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1사(社) 1교(校) 결연



운동의 일환으로 경남고는 지난 11월 22일 본부동창회 부회장인 박상호(26회) 등문이 회장으로 있는 중견 건설업체인 신태양건설과 결연식을 가졌다.

경남고로부터 결연 기업체 추천의뢰를 받은 본부동창회는 평소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박 등문에게 결연 취지 설명

과 함께 지원요청을 하자 흔쾌히 수락을 하여 좋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앞으로 신태양건설 측은 우수인재 육성 장학금 지급, 교육시설 현대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결연식에는 신태양건설 부회장으로 있는 남진현(19회) 본부부회장도 참석하였다.

신의. 창의. 성실을 중시하는 기업
자연과 인간을 생각하는 기업

- ◎ APEC 정상회의장 공동시공사입니다.
- ◎ 2006년 건설기업 대상수상

※모교 발전 결연 기업입니다.

대표전화: 051-504-6698

팩스: 051-504-6809

주식회사 신태양건설
회장 박상호(26회)
부회장 남진현(19회)
기술사 이상철(41회)

제 279 호

감사록

(주)신태양건설

귀사는 평소 지역사회에 충싼
하여 2004 ~ 2005 APEC 우수
건축공사 공동사업으로서 혁무를
성취해 수상하여 2005 APEC
평상회의장 공동체결과 기여를 공인
함으로 대해 감사증을 드립니다.

2006. 2. 28

부산광역시 해 남 신